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동영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특히 효율성을 내세워

'지방' 죽이는 시장논리 안된다

수도권의 피해는 심각하다. 대표적인 것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정책이다.

각종 규제 일률 적용이 문제

시장논리가 만능일 수는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해제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요건이 소멸됐으면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순리다.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야

수도권의 비대화는 '저효율-고비용'의 부작용을 낳는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48.3%, 총생산의 47.4%...

쟁들도 1.5대 1에 불과하다. 투기와 전매행위는 오래 전에 사라졌고 미분양 아파트만 1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광주지법 '전관예우 규제' 실천이 중요하다

광주지방법원이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타지역 출신의 판사를 특별관리 형사부에 배치하는 등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당사자가 판사에 테러를 자행하는가 하면,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사법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문제를 결단할 촉구할 지경에 이르렀다.

교원평가 결과 인사·승진에 반영해야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 506 곳을 선정, 발표했다. 내년 3월 전국 초·중·고교 40여만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가는 학생과 학교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교원평가제는 매우 미흡하다. 교육부가 평가 결과를 인사나 승진에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 및 전문성 신장 자료로 활용키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은핀칼럼

정범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공약을 앞다퉀 내놓고 있다. 그런데 현재 드러난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렇바씨의 경부윤하건설을 중심으로 한 토건국가론과 박근혜의 한중철차페리를 중심으로 한 물류국가론 이외에 뚜렷한 정책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대선공약과 차기정부에서 국가의 역할

업이나 물류기지 구축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다. 현재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상황판단이 너무 안이하고 천박해서 차기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한국경제에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강력한 산업정책을 동원했다. 그런데 우리 주류 경제학계나 정책당국에서는 이미 1등이 된 선진국들이 그 1등을 계속유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다시 말해 영미식 자본주의를 추수하면서 우리 경제를 신자유주의의 격랑속으로 내몰고 있다.

'은핀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핀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학용품도 생활용품처럼 리필 제품 생산했으면

어린이 학용품도 리필 제품을 판매했으면 좋겠다. 크레파스의 경우 플라스틱 케이스 크기만 가로 24cm 세로 18cm나 된다.

특히 크레파스는 종이로 싸졌지만 물감은 금속인 납이나 고무튜브로 만들어져 써지다 않는다. 아마 몇 백년 흘러야 써을 것이다.

기고

이상욱



보건복지부는 국제결혼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여성 입법에 남편과 영·유아 대책 필요

부족하다. 미국처럼 국가가 결혼하려는 상대국 국민에게 그 사람의 신용정보와 범죄기록, 건강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나라 글로 쓰고 반드시 그 나라 말로 읽어주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많거나 성장과정에서 상처가 있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이 많다.

출산 장려한다면 공기업 가족수당 제한 모순

남편이 얼마전 또 공기업에 취직했다. 집에서 남편과 애기를 나누던중 남편은 정부가 다져서 출산을 장려한다며 아파트 특별공급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정작 다른데도 아닌 공기업에서 영통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가족수당 3만원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셋째아이는 해당이 없으니 너무나 어처구니없었다.

無等鼓

미국에서 고품질의 인공 다이아몬드 시장이 본격 판매되기 시작해 다이아몬드 시장의 오랜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

수 있는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천연석과의 구별을 요청받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 업계의 불만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한다.

보석전쟁

2002년 유엔 평화유지군이 개입하기까지 무려 370만명이 목숨을 잃고사야 끝이 났다. 드비어스는 저가 다이아몬드를 사기 위해 이를 방종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기존 업계는 '피의 다이아몬드' 악몽을 떠올리며, 또 한번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866년 시에라리온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피의 역사'는 2002년 유엔 평화유지군이 개입하기까지 무려 370만명이 목숨을 잃고사야 끝이 났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dvertising, and circulation.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